

# 날마다 연극... 명실상부 ‘부산의 대학로’

부산의 연극 전용 소극장은 20곳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9곳이 경성대·부경대 근방에 몰려 있고 갈수록 그 숫자가 늘고 있다. 서울의 대학로에 빚대 남구를 ‘부산의 대학로’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 ■ 남구의 문화지도

### 〈1〉경성대·부경대 소극장

#### 1 소극장축제

2014년 개관, 서울 대학로의 전통 있는 소극장축제가 운영하는 소극장으로 배우, 연출 등 서울팀들이 내러와 공연한다. 1월 25일부터 세가지 예파소드를 통해 사랑의 가치를 알려주는 연극 ‘러브앤크레디트-첫번째 사연’을 공연한다.

- 좌석 120석·무대 면적 33.98㎡
- 남구 용소로13번길 10, 지하1층 (☎070-4104-2014)

#### 2 에저도 소극장

국내 첫 극단 전용 소극장으로 출발해 국내 소극장의 중흥기를 가져왔다. 1997년 남천동에서 개관, 2001년 문현동으로 옮겼다가 2008년 지금의 대연동에 자리 잡았다. 층고가 높고 조명과 음향시스템이 잘 갖춰져 세미뮤지컬도 열린다. 한해 10개월 이상 공연을 가질 정도로 활동이 활발하다.

- 좌석 72석·무대 면적 41.75㎡
- 남구 수영로293번길 42, 지하1층 (☎852-9162)
- http://cafe.daum.net/ejiocto

#### 3 초콜릿팩토리

‘혼자 놀지 말고 다 함께 놀자’를 모토로 하는 소극장이다. 초콜릿처럼 달콤한 로맨틱 코미디부터 씩씩한 판타지까지 관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순수예술의 극적 퀄리티와 대중예술의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고루 갖춘 연극 공장을 추구 한다.

- 좌석 164석·무대 면적 61.06㎡
- 남구 수영로 298 (☎621-4005)
- blog.naver.com/chocolate-factory

#### 4 나다소극장

남구 내 소극장 가운데 가장 최근에 개관했다. 극장 이름은 동사 ‘나다’에서 따왔다. ‘소극장에서 문화와 예술이 태어나다, 자라나다, 재미나다, 드러나다’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싶어 극장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매년 실험적



인 작품으로 관객과의 만남을 시도한다.

- 좌석 70석·무대 면적 55.6㎡
- 남구 용소로40번길 11 (☎010-4575-6393)
- blog.naver.com/nadatheater

#### 5 에노소극장

경성대학교 내에 연극 전용 극장으로 1997년에 개관했다. 연극, 뮤지컬, 마임극 등 다양한 공연이 가능한 부산 소극장의 터줏대감이다. 2014년 7월부터 경성대 연극학과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맡아 부산 지역 공연문화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다. 남구 내 소극장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커 부산국제연극제, 부산대학연극축전도 열린다.

- 좌석 220석·무대 면적 107.6㎡
- 남구 수영로 309, 1층 (☎663-5363, 5180)
- ks.ac.kr/culture

#### 6 용천지탈소극장

2008년 문화골목 2층에 문을 열었다. 자체 전용 극단 없이 주로 대관 형태로 운영한다. 문화골목은 건축가 최윤식씨가 주택 4채를 사들여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이다. 문화골목에는 소극장 용천지탈 외에 갤러리 ‘석류원’, 커피숍 ‘다반’, 음악카페 ‘노가다’, 맥거리 주점 ‘고방’, 일본식 주점 ‘몽로’ 등 다양한 업종이 공존하고 있다. 2008년 ‘부산 다운 건축상’ 대상상을 받았다.

- 좌석 80석·무대 면적 45㎡
- 남구 용소로103번길 36-1 (☎625-0767)
- http://cafe.daum.net/yongcheon48

#### 7 극장해프닝

옛 가운데아트홀3관에서 시민 공모를 통해 지난해 명칭을 극장해프닝으로 바꿨다. 지하에 위치하고 별도 매표소나 관객대기실은 없지만 무대 안쪽은 남구에서 에노소극장 다음으로 넓다.

- 좌석 149석·무대 면적 64.74㎡
- 남구 수영로298번길 41 (☎070-4618-7232)

#### 8 하늘바람소극장

사직동에 있던 극단 아선이 남구로 옮겨 오면서 2014년 2월에 개관했다. 30년 넘게 현장에서 전업 연극인으로 활동한 배우 구민주씨가 대표를 맡고, 극단 아선의 연출가 호민씨가 극장을 운영하는 투톱 시스템이다. 연극 공연 외에 연극 창작 작업, 연극 교육 프로그램, 전문 연극인 양성프로그램 등도 운영 중이다.

- 좌석 83석·무대 면적 46㎡
- 남구 용소로13번길 17, 7층 (☎504-2544)
- cafe.naver.com/acen2000/

#### 9 운형빈소극장

개그맨 운형빈이 운영하는 개그 전용 극장이다. 운형빈의 티켓파워에 힘입어 2011년 10월 개관 이래 소극장 최단기간 누적 관객 20만명을 돌파했다. 연속 매진 54회, 예매사이트 개그공연 최고 평점을 받기도 했다. 지난 7월 3일 남구 소극장 흥행으로 서울 흥대에도 2호점을 개관했다.

- 좌석 140석·무대면적 40㎡
- 남구 수영로312, 지하1층 2호 (☎610-1003)
- cafe.naver.com/busangag

# 2200년 전 ‘불로초 원정대’ 방문

## 남구의 뿌리를 찾아서

### 6 문현동의 유래

문현동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까? 공식 기록에는 1894년에 발행된 동래부지에서 그 사실이 처음 확인된다. 여기에는 문현동의 전신인 ‘동래부 서면 문현리’가 보인다. 1904년에 간행된 동래군 가호 안에는 ‘서하면 관내에 문현리가 있는데 당시 호수는 21호이고, 김·이·정씨 등이 살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처럼 인적이 드물었던 이유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산지 형태의 외진 골짜기였기 때문에 사람이 들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문현’이라는 지명은 언제 생겨난 것일까? 정확한 시기는 전혀 알 수 없다. 다만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는 문현1동의 고동골과 문현4동의 지계골을 진원지로 하는 두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다. 먼저 큰길을 따라 지계골부터 가보자. 이곳 골짜기를 한자로 쓰면 ‘호곡’(戶谷)이 된다. 지계처럼 생긴 골짜기라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계’는 짐을 지는 지계가 아니라 손우리 말인 ‘지계문’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지계문은 마루에서 방으로 드나들 때 안팎을 두개개 중이로 바른 외곽의 문을 말한다. 양쪽 산이 겹쳐져 있던 이 고개가 마치 그런 형국이라서 외곽문의 ‘문’과 고개 ‘현’이 합쳐져 ‘문현’이란 지명이 생겼다는 설이다. 지금은 문현고개 또는 대연고개로 불리는 이 고개는 1950년대만 해도 사람이 많이 태운 버스가 뒤로 미끄러지는 아찔한 광경이 다반사였다. 1965년 작평 공사를 하면서 10미터 정도 돌산을 깎아 내렸는데, 현재 왕복 6차선인 수영로의 완만한 고개마루에 올라서면 양쪽의 깎아지른 절계면에서 고개 높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 # 1830년대 청주 한씨가 첫 정착

이처럼 높고 외진 골짜기에 처음 뿌리를 내린 입성조는 청주 한씨로 알려져 있다. 현재 팔손을 바라보는 6대 후손이 이곳 지계골을 지키고 있다. 1대를 약 30년으로 보면 180여년 전에 이곳을 터전으로 삼은 셈이다. 손자 또 처연 8대가 되니 더 오래 전으로 거슬러 갈 수도 있다. 이곳 지계골에는 흠비로문 전설도 연결돼 있다. 기원전 219년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제가 ‘서북’이라는 방사(산신의 도를 닦는 사람)에게 산신의 땅인 삼신산에 가서 불로불사의 약약을 구해오라고 한다. 그는 풍남동너 오백 명을 거느린 선단을 꾸려 보하이만(발해)을 거쳐 한반도로 건너온다. 삼신산과 지명이 유사하거나 신선과 관련 있는 장소들을 찾아갔던 그는 마지막으로 제주도로 건너가기 전에 부산을 오게 되는데,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배경고등학교 뒷산의 ‘강선대’였다. 글자 그대로 신선이 내려와 노니 이곳을 오르기 위해 그는 당시 바다였던 지금의 우암로 일대를 우회해 지계골을 거쳐서 올라갔다. 일설에는 장고개로 올라갔다고 하고 ‘서사파자’라는 기념표지석이 그 어디쯤 서있었다고 하는데 확인할 길은 없다. 다만 1970년대 초까지 지계골 대로변 인도에 A4용지보다 조금 큰 형태로 그의 행적을 기념하는 기념표지석이 쫓겨 있었다고 한다. 굳이 그 기념표지

석의 4글자를 풀이해보면, ‘서북이 인적이 있는 이곳을 다녀가다’ 정도가 될 것이다. 이로 미루어 ‘문현’이라는 지명은 이미 2200여 년 전에 생성되기 시작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 # 또 하나의 ‘문현’ 고동골에 영산 신씨 첫 정착

그리고, 또 하나의 ‘문현’은 문현1동 고동골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마을 영산 신씨 집안으로 열여덟 살 때 시집와서 70년 넘게 살아오신 막내며느리 분이 윗대 어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하면서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옛날 민중들의 삶이 도탄에 빠져 대규모 민란이 발생했을 때 그 난을 피해 이곳의 입향조 되시는 두 형제분이 영산을 떠나 정처 없이 온 곳이 황령산에 이르렀다고 한다. 며칠 동안 황령산에 머물던 형제분은 산 아래로 내려와 밤낮을 잊고 돌무지를 개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고동골이다. 형제분이 황령산에서 내려다보니 마치 고동의 속처럼 고불고불하고 슬쩍따처럼 오목하게 들어앉아 있는 지형이 유독 눈길을 끌더라는 것이다. 당시 외부에서 그러한 고동골을 들어가려면 마치 병풍처럼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거친 산을 넘어야 했다. 이 산이 안과 밖의 경계인 문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높은 고개까지 넘어야 했으므로 문과 고개가 합쳐진 ‘문고개’ 즉 ‘문현’이 되었다는 설이다. 지금도 문현2동쪽 원로 분들 중에 이 마을을 ‘문안’ 혹은 ‘문나미’ 등으로 부르는 풍습이 있다. 이는 지계골과 마찬가지로 깊은 골짜기 안에 마을이 있고 인적 또한 드물었다는 증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노골화되고 좌천된 일대 해안 매립 공사(1928년~1938년)가 대대적으로 진행될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문현동 전방에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해안 매립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돌과 흙을 문현초등학교 서면 일대 야산을 허물어 채취해 갔는데, 이때 상당수 주민들이 동원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 이후 1945년 해방과 더불어 귀환동포가 들어왔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피난민들이 대거 유입돼 문현동 전체 주민이 동원적으로 늘어났다. 겨우 비바람을 피하던 피난민들의 애환 서린 움막은 차츰 주택으로 변모해 갔으나 1976년경 철거되기 시작해 지금은 흔적을 찾기 힘들다.

문현동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2015년 12월말 현재 주민 수만 해도 2만1,062세대에 5만721명에 이른다. 각종 교육기관과 공공기관, 주민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들은 동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로터리에에는 동서고가로와 도시고속도로 변영로의 진출입이 시작되고, 대단지 고층아파트와 고층 오피스텔이 변영의 상징처럼 빙 둘러 서있다. 또한 국내 외 유수의 금융기업들이 사옥으로 입주해 있는 문현금융단지과 63층 초고층 부산국제금융센터의 대내외적인 위용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다. 불과 120년 전의 문현동을 생각해 보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변화들이 전개돼 왔던 것이다. 이제는 남구의 서쪽 관문이자 교통의 요충지로서 질 없는 역동성을 뽐내고 있으니 더 놀라운 변화들이 기다려지는 것도 무리는 아닐 듯하다.

곽태욱(항토사연구가·소설가)

## 유엔평화기념관 ‘피난지 부산’ 재현

### ‘리멤버 더 데이...’ 기획전

유엔평화기념관(관장 전외숙)이 6·25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삶을 재현한 전시체험공간을 마련했다.

유엔평화기념관은 지난 22일 1층 기획전시관에서 ‘리멤버 더 데이((Remember The Day) 6·25, 그 시절 대한민국 그리고 부산’ 전시회 개막식을 가졌다. 이번 기획전시는 1년간 진행된다.

430㎡ 전시공간은 서울역→피난길→부산도착→피난민촌→보수동, 책방골목과 학교→국제시

장→밀다원 등 관객 동선에 따라 7개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고향을 떠나는 피난행렬부터 임시수도 부산과 거대한 피난촌이 된 부산의 모습 등 드라마틱한 상황이 고증을 거쳐 사실적으로 복원되어 있다. 이밖에 보수동 책방골목과 당시의 교실 모습, 또 예술가들의 집터로 유명했던 밀다원 등이 관람객의 눈길을 잡는다.

전시 공간 외에 밀다원 단골이었던 백영수 화백의 소품전, DDT분기, 실제 천막학교에서 쓰여졌던 교과서, 참전국 21개국 기념표 등 추억이 깃든 소품들도 관객들을 기다린다. 무료 입장. ☎901-1400

### 2016년 1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신청 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16. 2. 1. ~2. 5.
- 모집인원 : 남구전체 총 34명
- 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이하인 자
- 신청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사업기간 : 2016. 3월~6월
- 문의 : 경제진흥과 일자리담당 ☎607-4291



한국전쟁 당시 돌산마을 뒷산에서 초상을 치르고 주민들이 산을 내려가고 있다. 왼쪽 군부대가 있는 지리는 지금의 문현1동. 사진형면으로 남겨진 강선대가 보인다.

## 주민자치회 프로그램과 함께합시다

동명	프로그램명	운영요일	시간	접수	문의처	동명	프로그램명	운영요일	시간	접수	문의처				
대 연 5 동	풍물교실	화	10:00~12:00	2016. 1. 21. (목)~	607-6688	대 연 5 동	어르신건강체조	월, 수 (중급)	13:30~14:30	연중	607-6688				
	서예교실	화	13:00~15:00	"			풍물교실	수	10:00~12:00	"					
	한지공예	수	10:00~12:00	"			요리교실	수	10:30~12:30	"					
	생활영어교실 (초급)	월	10:00~12:00	"			민요교실	수	14:00~16:00	"					
	생활영어교실 (중급)	수	10:00~12:00	"			문인화교실	목	10:00~12:00	"					
	다요가(A)	월, 목	10:00~11:00	"	607-6642		요가A	월, 수	09:00~10:00	접수미감		607-6704			
	다요가(B)	월, 목	11:00~12:00	"			요가B	월, 수	10:00~11:00	"					
	다요가(삼익)	월, 수	20:00~21:00	"			발리댄스	월, 수	11:00~12:00	수시접수					
	문인화교실	목	13:00~15:00	"			한지공예	월, 수	13:00~14:30	"					
	원어민 중국어교실 (초급)	금	13:00~15:00	"			한국무용 (초급반)	목	14:00~15:00	"					
원어민 중국어교실 (중급)	목	10:00~12:00	"	한국무용 (중급반)		목	15:00~16:00	"							
키르기스발레교실	화, 금	15:30~16:30	"	헬트톤아리		화	11:00~12:30	"							
스포츠댄스	화, 금	11:00~12:00	"	노래교실		목	10:00~12:00	"							
나타만(모듬북)	화	14:00~15:00	"	일본어		금	10:00~12:00	"	대 연 4 동	컴퓨터 (중급)교실	월, 금		14:00~16:00	접수 중	607-6722
노인강좌	목	13:00~17:00	"	영어 (초급)교실		화, 목	10:00~11:00	"							
서예·한자교실	월	10:00~12:00	수시접수	영어 (중급)교실	화, 목	11:00~12:00	"								
문인화교실	화	13:00~15:00	"	민요왕궁교실	월	10:00~12:00	"								
대 연 5 동	컴퓨터교실	월, 수 (2개월 과정)	10:00~12:00	"	요가교실	화, 목	12:30~13:30	"							
		화, 목 (2개월 과정)	10:00~12:00	"	청소녀태권도교실	월, 수	18:00~19:00	"							
	요가교실 (중급)	화	10:00~12:00	"	문인화교실	화	14:00~16:00	"							
	풍물교실	월, 수	14:00~16:00	"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수	16:00~17:30	접수미감							
	요가교실 (초급)	목	10:00~12:00	"	생활과학교실	수	10:00~12:00	접수 중							
	뿔뿔노래교실	금	14:00~16:00	"	컴퓨터교실	월, 수	14:00~16:00	대기자로 접수							
	어린이한국사	월	16:00~18:00	연중	사군자교실	월, 수	10:00~12:00	선착순 20명							
	창의논술NIE	화	16:00~18:00	"	한지공예교실	화	10:00~12:00	선착순 15명							
	한국어초중급	화	10:30~12:30	"	607-6745	풍물교실	월	15:00~17:00	선착순 20명						
	생활과학교실	목	15:00~16:30	"		목	14:00~16:00	20명							
한글교실	화	11:00~13:00	"	어르신노래교실		금	14:00~16:00	선착순 40명							
	금	10:00~12:00	"												
스포츠댄스	월, 수	11:00~12:00	"												
대 연 5 동					대 연 5 동					607-6688					
						신나는 건강댄스	월, 수	14:00~15:00	방문접수						
						요가 I	월, 수	11:00~12:00	방문접수						
						요가 II	화, 목	11:00~12:00	방문접수						
						꽃꽂이교실	화	14:00~16:00	방문접수						
						디지털 카메라	목	10:00~12:00	방문접수						
						힐링·요가리나 (초급)	수	15:00~16:00	방문접수						
						힐링·요가리나 (중급)	수	14:00~15:00	방문접수						
						체력다련선	월~수	06:00~20:00	방문접수						
						대 연 5 동	서예교실	화, 목	10:00~12:00		수시접수	607-6785			
				사주교실	월		10:30~12:30	"							
				풍물교실	수		10:00~12:00	"							
				생활영어교실	금		10:00~12:00	"							
				민요교실	금		14:00~16:00	"							
				짜지 도서관	월~금		13:00~17:00	"							
				유선청 채록공원	월~일		상시이용가능	"							
				영어교실	화, 목		14:00~16:00	연중							
				풍물교실	월, 금		10:00~12:00	"							
				요가교실 I	화, 목		09:30~11:00	"							
				요가교실 II	화, 목	10:00~11:00	"	대 연 5 동	사물놀이	월, 수	14:00~16:00	접수중	607-6826		
				서예교실	월, 수	10:00~12:00	"								
				단학교실 (초급반)	월, 금	10:00~11:00	"								
				단학교실 (중급반)	월, 금	11:00~12:00	"								
				요가교실	화, 목	09:20~10:20	"								
				노래교실	화, 목	10:30~12:30	"								
				도예교실	수	10:00~12:00	"								
				어린이생활과학교실	금	16:00~17:30	"								
				서예교실	월	13:00~15:00	수시접수								
				문인화교실	수	10:00~12:00	"								
				대 연 5 동	주산·양산 교실	화	14:00~16:00	접수미감	607-6876						
					요가교실	수, 금	12:30~13:30	"							
					스포츠 댄스	수, 금	14:20~15:20	"							
					생활안전체조	수, 금	15:30~16:30	"							
					노래교실	목	13:30~15:30	"							
					건강에어로빅	화, 목	09:00~10:30	"							